

인지도를 이용한 대학교 캠퍼스의 이미지 분석
 -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age of the University Campus with Cognitive Maps
 - The Image of Yonsei University and Its Surrounding Area -

정지범* 김태현** 김홍규***
 Chung, Jibum Kim, Taehyun Kim, Hongkyu

Abstract

To develop a master plan of a university campus, we need to know how students view and use their campus. For this purpose, the well-known Lynch's(1960) cognitive mapping methods are used to figure out the image of Yonsei University and its surrounding area which is perceived by the students of Yonsei University. Major findings are that the cognition levels for the edge which divides Yonsei University from the surroundings and the paths which the students commute along are relatively high. The students mainly use campus space near the main gate rather than the space deep inside of the university, which shows they use the campus space unevenly. Therefore, when considering a new master plan of Yonsei University, it is needed to develop methods which increase the even use of the campus space such as developing new commuting paths.

키워드 : 이미지, 인지도, 대학 캠퍼스, 마스터플랜
 Keywords : Image, Cognitive Map, University Campers, Master Pla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대학 캠퍼스는 도시 설계를 위한 실험실이다”.1)

이는 끊임없이 생성, 변화, 소멸하는 대학 캠퍼스를 위한 계획 과정이 마치 하나의 도시를 계획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그 중요성과 어려움을 강조하는 말이다.

한국의 대학은 70, 80년대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폭발적 양적 확대를 경험하여, 1970년 인구 만 명당 61.6명에 불과하던 대학생의 수가 2002년에는 무려 634.1명에 이르러 10

* 정회원,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사지도교수

** 정회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환경설계학박사

1) Turner, P. V., Campus, MIT Press, pp. 271. 1984.

배가 넓게 증가하였으며²⁾ 이에 따라 대학 캠퍼스도 계속적인 확장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대학들은 과도한 정원의 증가와 무분별한 캠퍼스의 개발로 인하여 더 이상의 확장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도심의 대학들의 경우, 캠퍼스 내부의 혼잡은 물론, 외부 주변 지역들도 혼잡과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가 위치한 신촌 지역은 주변의 4개 대학(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연세대)이 인접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가로서, 매우 많은 유동인구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소비 향락 문화, 교통혼잡, 무질서한 공간 이용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³⁾

대학 캠퍼스와 그 주변의 정비 계획의 마련, 나아가 대학 캠퍼스 전체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들이 느끼고 있는 대학 캠퍼스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대학 캠퍼스와 그 주변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고, 이를 분석하여 연세대학교 캠퍼스와 그 주변의 효과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을 대상으로 하여, Lynch(1960)의 인지도(cognitive map) 작성 방법을 간략화하여 수행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이 지역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 및 인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캠퍼스와 그 주위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중심적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대학 캠퍼스 자체의 계획 과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마스터 플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학자

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양우현(1991)은 국내 대학의 계획과정에 있어, 특수성의 부재, 일관성과 위계의 혼란, 계획개념의 모호성, 계획방법의 임의적 선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캠퍼스 계획, 계획요점, 선택가능성의 결정 및 조합, 계획원칙 등을 통한 마스터플랜의 작성을 주장하였다.⁴⁾ 민창기(2002)는 한국 대학의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을 1950년대 부터 2000년대 까지, 암흑기, 여명기, 발전기, 변화기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기를 대표하는 대학의 마스터플랜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의 마스터플랜은 그 당시의 정책적인 방향과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변화기라 일컫는 최근에는 학교 시설 정책에 있어서도 자율화, 특성화, 다양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대학을 보는 시각이 증가하면서 대학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졌고, 김철수(2000)는 1990년대 이후부터 대학캠퍼스와 주변 지역 사회와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한 캠퍼스 및 대학촌 조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⁶⁾ 이와 같은 대학 주변 지역에 관한 연구의 경우, 대학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정태적 분석과 이를 통한 대안의 마련이 중심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이숙임(1995) 등의 신촌 지역에 대한 연구와 김한수(1999)의 대구 지역 대학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대학 주변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심리적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김한수(1999)는 대구 지역 대학 캠퍼스 주변의 편의시설 이용행태와 시설만족도를 연구하였고,⁷⁾ 김미자(2003)는 신촌 지역의 연세대학교와 홍익대 주변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⁸⁾ 또한 이양재(2001) 등은 원광

2)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2004년 9월 13일 접속
3) 국민일보, 대학풍토를 바꾸자(4) 캠퍼스 주변환경, 2004. 3.14.

4) 양우현, 이광로, 대학 캠퍼스의 계획과정에 관한 연구(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1호, p45-51, 1991.
5) 민창기, 대학 마스터 플랜 형성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9권, 제1호, 2002.
6) 김철수, 전정아, 대학캠퍼스주변의 생활편익시설 이용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Vol.35, No.1, 2000.
7) 김한수, 대학주변의 물리적 환경실태에 관한 연구-대구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Vol.34, No.2, 1999.
8) 김미자, 대학캠퍼스주변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대와 전북대 주변 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동태적, 시계열적 변화를 알아보려는 연구를 수행했다.⁹⁾

본 연구 방법의 기초를 제공한 Lynch(1960)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의 거주민들에게 그 도시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스케치 맵(sketch map)을 그리게 하고, 더불어 가장 인상적인 요소, 주된 통근로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통로(paths), 가장자리(edges), 지역(districts), 결절점(nodes), 지표물(landmarks) 등 5가지 요소를 통해, 전문가의 이미지가 아닌 도시 거주민들의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¹⁰⁾ 이러한 인지도(cognitive map) 기법은 도시 속에서의 길찾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 도시 거주민이 중요하게 느끼는 도시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Lynch의 기법은 그가 사용했던 표본의 크기, 방법론상의 문제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를 원용하거나 변형시킨 연구를 지속해 왔고, 다양한 대상 지역과 피실험자를 활용하여 발전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이훈(1999) 등이 청주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이미지 분석을 시행하였고¹¹⁾, 박영춘(2002)은 이 기법을 도시의 한 부분인 단지지역을 대상으로 Lynch의 5가지 이미지 요소를 쌍대비교하여, 거주민과 전문가들이 느끼는 이미지의 차별성을 분석하였다.¹²⁾

3. 연세대학교 개요

연세대학교는 961,634m²의 면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4년 4월 현재 학부생 26,308명이 재학 중이다.¹³⁾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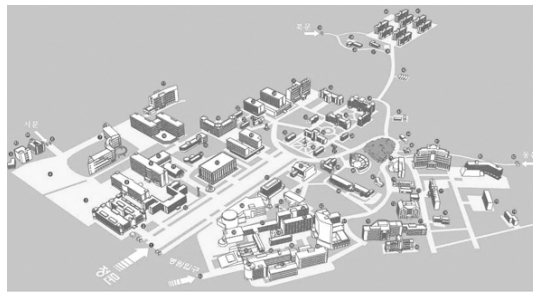


그림 1. 연세대학교 배치도 (<http://www.yonsei.ac.kr>)

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는 1915년 해외 선교사들의 도움을 얻어 서울 YMCA에서 Chosun Christian College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개교하였다. 현재의 교지는 1917년 언더우드(John T. Underwood)의 기부금으로 구입하였고, 스티븐홀(문화재 사적 275호)의 완공과 함께 1920년에 이전한 것이다. 현재의 배치도에서 보듯이 연세대학교는 몰(Mall)형 구조를 중심으로 교내 부지의 사용 밀도를 높이는 방식과 외부로의 확장을 병행하면서 발전하였고 현재의 배치도는 그림 1과 같다.

연세대학교가 위치한 신촌 지역은 서울의 주요 부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과 함께 서울의 가장 중요한 대학가로서 잘 알려져 있다. 신촌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그림 2.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의 개략도 (지도출처: <http://www.congnamul.co.kr>)

만족도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9) 이양재, 유기룡, 대학로 주변지역의 형성과정 및 토지 이용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Vol.36, No.1, 2001.

10)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11) 이훈, 이용희, 인지도에 의한 청주시 이미지 분석,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제18권, 제1호, 1999.

12) 박영춘, "도시의 이미지" 측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Vol.37, No.4, 2002.

13)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yonsei.ac.kr>), 2004년 7월 1일 접속.

비하여 교육 및 문화 관련 시설이 비교적 많이 집적되어 문화적 성장 여력이 큰 지역이지만, 각종 소비□향락 문화, 혼잡 및 무질서한 공간 이용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그림 2는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이다.

4.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인지도 분석

4.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Lynch(1960)의 기본적인 방법을 원용하되, 그 대상지역을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으로 한정하였고 피실험자들은 연세대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Lynch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다양한 거주집단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지 연구가 정책적 함의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¹⁴⁾ 본 연구의 목적은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의 환경 개선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수혜대상으로서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을 고려하고 있다. 또 대상 피실험자를 연세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한 1,2학년 학생들로 하였는데, 이는 주로 1,2학년 학생들이 교양 수업,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학교 전체를 넓게 사용하며, 고학년 및 교직원들에 비하여 학교 캠퍼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이러한 판단은 Appleyard(1970)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새로운 거주민들이 스케치맵을 그릴 때, 오래 거주한 사람들보다 좁고 한정된 지역을 그리지만, 오히려 오류가 적었다는 주장과¹⁵⁾ 견해를 같이 한다.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1, 2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는 총 43명의 표본을 선정하였고 인지도 작성 실험을 2004년 6월에 수행하였다. 인지도

의 작성은 A4 용지에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에 대한 스케치맵을 그리게 하고, 자신들의 주된 통학로를 표시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성별, 나이, 거주지와 선호 장소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병행하였고, 이 설문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재 거주지 주소
- ② 등교 시 이용하는 교통 수단
- ③ 학교에 평균적으로 머무르는 시간
- ④ 연세대학교 내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
- ⑤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맘 편히 머물 수 있는 곳
- ⑥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험오스러운 곳

4.2. 분석 결과

1) 일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세대학교에 다닌 기간, 계열 등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거리별로 거주지를 근거리(5km 이내), 중거리(서울시 내), 장거리(서울 근교)로 나누고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51.2%로 가장 많았고, 거리가 멀수록 지하철의 이용비율이 높아져, 장거리 통학생들의 경우 80%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근거리 통학생은 주로 지방학생들로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 (도수 (%))

구분	내용	인문계열	자연계열	계
성별	남	11 (25.6)	16 (37.2)	27 (62.8)
	여	11 (25.6)	5 (11.6)	16 (37.2)
	계	22 (51.2)	21 (48.8)	43 (100)
재학기간	6개월 이내	15 (34.9)	13 (30.2)	28 (65.1)
	1년 6개월 이내	7 (16.3)	8 (18.6)	15 (34.9)
	계	22 (51.2)	21 (48.8)	43 (100)

표 4.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와 교통 수단 (도수 (%))

구분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계
도보	7 (16.3)	0 (0)	0 (0)	7 (16.3)
버스	3 (7.0)	9 (20.9)	2 (4.7)	14 (32.6)
지하철	0 (0)	14 (32.6)	8 (18.6)	22 (51.2)
계	10 (23.3)	23 (53.5)	10 (23.3)	43 (100)

14) 박영춘, "도시의 이미지" 측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Vol.37, No.4, 2002에서 재인용

15) Donald Appleyard, Style and Methods of Structuring a City, Environment and Behavior 2, June, p 112, 1970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고 있다.

2) Sketch map 분석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의 이미지 도출을 위한 인지도 조사 결과, 학생들 사이에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는 Lynch(1960)의 요소는 가장자리(edge)로서,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을 경계 짓고 있는 성산로(95.3%)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통로(path)로서 연세대학교의 입구에서 본관까지를 지나는 백양로(93%)와 대부분의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는 신촌지하철역에서 연세대학교까지의 연세로(93%)를 많이 표현 하였다. 교내 건물로서는 학생회관(83.7%), 도서관(83.7%), 공학원(83.7%), 그리고 공학관(76.7%)도 많이 제시되었다. 조사 결과 특히 공대 건물들에 대한 표현이 많았는데 이는 공대가 연세대학교 입구에 위치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공학원

의 경우에는 입구에 위치한 대단위의 건물로서 지표물(landmark)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알려져 왔던 본관(Underwood관, 문화재 사적 276호, 74.4%)이 공학원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정문 부근을 가장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연세대학교가 통학생 중심의 문화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주변으로는 통학생이 많은 특징의 반영으로서 신촌지하철역(74.4%)이 가장 많이 표현되었다. 학교 앞의 대표적인 지표물로서는 독수리빌딩(65.1%)이 지적되었고, 쇼펩 지구(district)로서 현대백화점(58.1%)이 신촌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통학로의 일부로서 사용되면서 많은 인지도를 얻었다. 그림 3, 4는 각각 75% 이상, 50% 이상 수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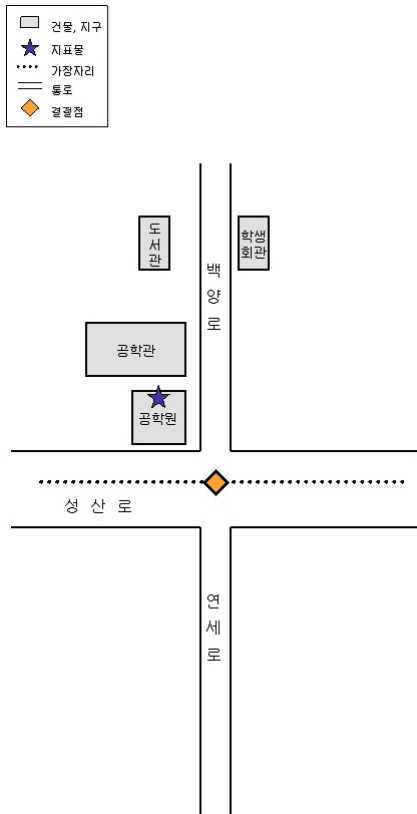


그림 3. 응답자 빈도 75% 이상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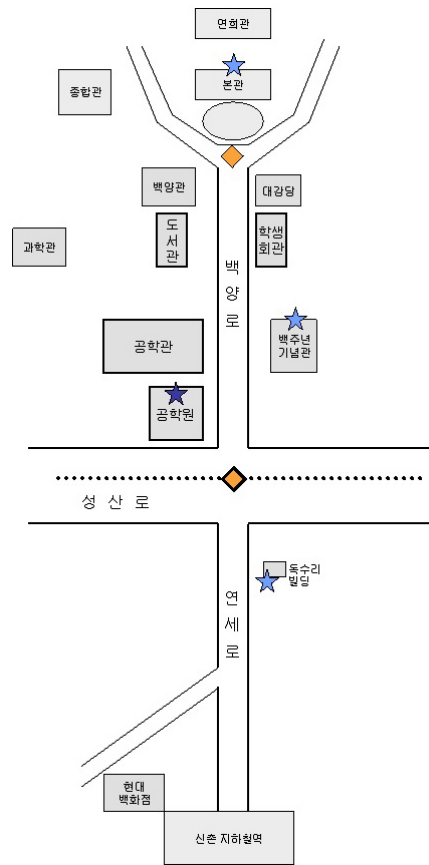


그림 4. 응답자 빈도 50% 이상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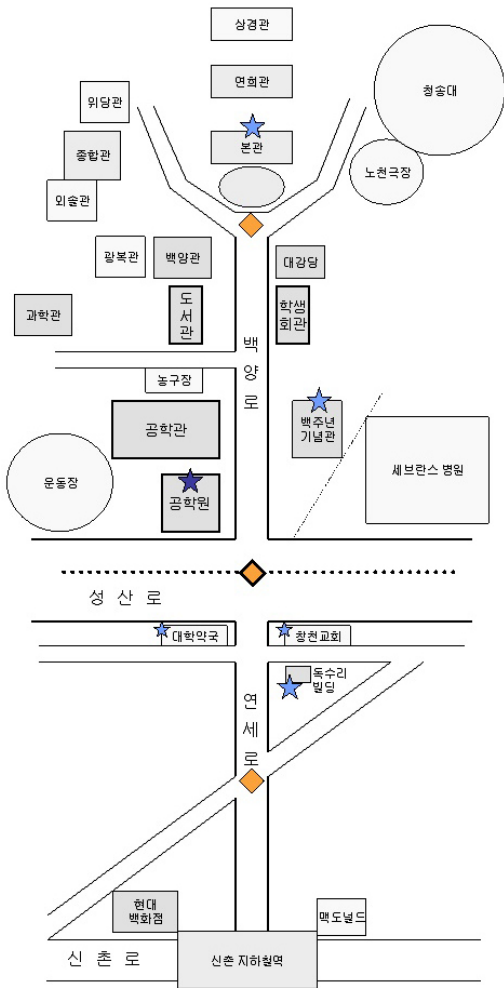


그림 5. 응답자 빈도 25% 이상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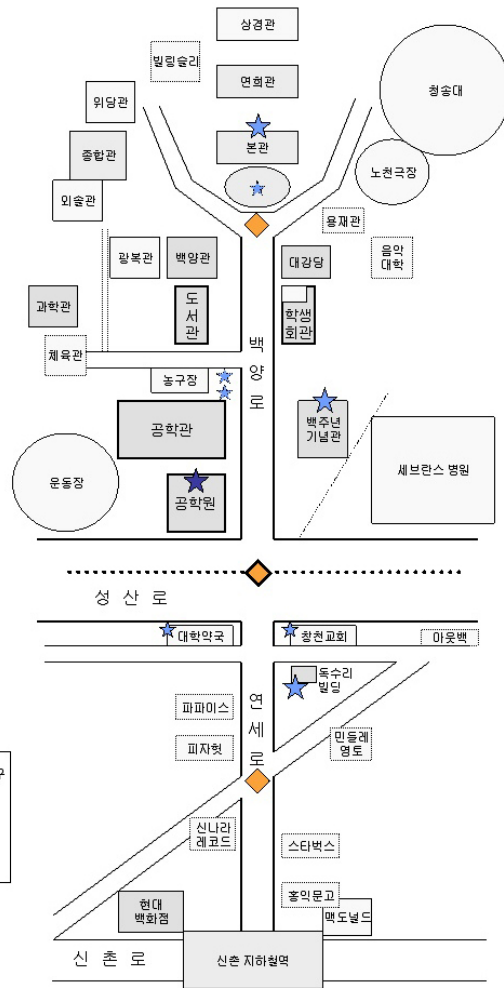


그림 6. 응답자 빈도 12.5% 이상의 인지도

인지도이고 그림 5, 6은 각각 25% 이상, 12.5% 이상 수준의 인지도이다.

Lynch(1960)의 연구에서 지구(district)의 개념은 관찰자가 그 지역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enter inside of) 느끼는 동질적 성격을 가진 도시의 중대 지역(medium-to-large section)이며, 지표물(landmark)은 관찰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외부의 물리적 요소로서 건물, 상점, 표지판 등 지표의 역할을 하는 점적 요소(point reference)이다.¹⁶⁾ 본 연구와 같은 소규모 지역에 대한 연구

16)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p47-48, 1960.

에서 있어서도 Lynch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구의 개념은 하나의 거대 건물(도서관, 학생회관 등)이나 단일 성격의 지역(청송대, 병원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지표물의 개념은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외부의 중요한 지표로서 인식하고 건물(본관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학원, 백주년기념관, 독수리빌딩 등은 지구의 개념과 지표물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관의 경우 그 내부에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본관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표물의 특징이 매우 강하

다고 볼 수 있고, 공학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건물이지만, 정문에 위치하여 지표물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12.5% 이상의 응답 빈도를 분석해 볼 때, 교내의 주요 지표물은 공학원, 본관, 백주년기념관, 언더우드상, 독수리상, 활천대(분수대) 등으로 볼 수 있고, 교외에선,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독수리빌딩, 창천교회, 대학약국 등이 주요 지표물로 인식되었다. 특히 대학약국은 다른 지표물과는 달리 외관상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지표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이 연세대학교 앞 상권의 중심지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주요 결점점(node)로 지적된 곳은 성산로와 연세로의 교차점인 연세대 정문 앞, 그리고 교내의 백양로 삼거리, 교외의 연세로와 명물거리길의 교차로이다.

3) 응답자 특성 및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스케치맵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의 요소로서 지적된 것은 총 104개에 이른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중 일부만 응답하여, 평균 응답 요소수는 26.09개(25.1%)였다. 남녀별, 계열별, 재학기간별, 교내 체류시간별 차이는 표 3과 같다.

여기서 성별 및 계열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교내 체류시간이 길수록 학교와 그 주변에 대한 인지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재학기간별 차이에 있어 재학 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높은 응답 요소수를 보이고 있는데(t=2.896) 이는 1학년 학생들이 학교를 넓게 사용하고, 또 주변에 대한 관심도 높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일찍이 Appleyard(1970)에 의해서도 주장된 바 있다.¹⁷⁾

17) Newcomers of six months to a year, while they drew more restricted areas of the city, drew them with fewer errors than those residing there longer, indicating that their level of interest and concern was probably high".(Mark Horan, What students see: sketch maps as tools for assessing knowledge of librari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표 5. 남녀별, 계열별, 재학기간별, 체류시간별 응답 요소수 차이 (*p < 0.05)

구분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성별	여	16	27.06	8.985	0.544
	남	27	25.52	8.993	
계열	인문	22	26.91	8.580	0.610
	자연	21	25.24	9.386	
재학기간	6개월 이내	28	28.75	7.260	2.896*
	1년6개월 이내	15	21.13	9.812	
체류시간	8시간 이상	22	28.50	7.150	1.865
	8시간 미만	21	23.57	10.008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연세로-정문-백양로(60.5%), 성산로-정문-백양로(25.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로 정문 부근을 항상 이용하고 있으며, 반면 서문, 동문, 북문 등의 이용 비율은 무척 낮아, 학교와 그 주변이 매우 불균형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내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에 대한 응답은 본관(Underwood관)이 23.3%의 비율로 가장 인상적인 곳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언더우드 동상이 11.6%의 응답을 보여 본관과 그 주변 지역이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가장(34.7%) 인상적인 곳으로 나타났다. 학생회관, 도서관, 공학원의 경우 스케치맵의 분석결과 가장 잘 인지된 건물들이었지만, 학생들이 인식하기에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인상적인 건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편한 장소는 도서관(23.3%)으로 나타났고, 청송대(11.6%)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통학생들이고, 전공이 정해지기 전의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학교 내 생활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짐을 락커 등에 보관할 수 있고, 학교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공강 시간에 머물러 있기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송대의 경우, 연세대를 대표하는 휴식 장소라는 일반적 개념과 달리 스케치맵의 분석 결과 청송대

Volume 25, Number 3, 1999.에서 재인용)

의 인지율이 낮았던(37.2%) 점을 고려하면, 청송대의 이용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송대가 학교 내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일부러 가지 않는 한 방문하기 어려운 편이며, 연세대학교가 주로 통학생 위주로 이용되어 학교 정문과 백양로 주변에 이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촌지하철역에서 연세대학교에 이르는 연세로의 경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학로이지만(60.5%) 가장 혐오스러운 지역으로(27.9%) 인식되었다. 이는 등하교시의 혼잡, 근처 유흥가의 소음, 오물 등 주로 환경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으로는 연세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불쾌하게 느끼면서도 연세로를 주된 통학로로 이용한다는 사실이며, 향후 효과적인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연세로의 정비가 꼭 필요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연세대학교의 동문, 서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학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개선 방안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에 대한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의 이미지를 알아보기로 스케치맵을 활용한 인지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공학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의 정문 부근과 백양로 일대, 교외에서는 독수리빌딩과 대학약국 주변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가장 잘 인식되는 지역이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뚜렷이 드러난 요소로서 선산로가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을 분리하는 경계로서 작용하고 있었고, 연세대학교 정문 앞과 백양로 삼거리 등이 주요한 결점으로 밝혀졌다. 또한 병행한 설문 조사 결과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은 본관과 그 주변으로 나타났고, 가장 혐오스러운 장소로서 연세로 주변이 지적되었다.

즉, 연세대학교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정문 중심으로 인지되고, 이용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연세로를 중심으로 한 통학로에 대한 불만과 청송대 등 연

세대학교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공간활용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통학로의 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정문에 비하여 동문, 서문, 북문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고, 교내 중심시설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정문에 비하여 덜 혼잡하고,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동문의 경우에는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휴식적인 청송대를 가로지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부근의 대중 교통을 유인하고, 셔틀버스 등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올리려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교내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병행하여 주 통학로인 연세로의 주변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캠퍼스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통학로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캠퍼스의 이미지가 통학생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학생인 국내의 여타 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통학생(commuter students) 중심 대학의 문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의 통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Babara(2000)는 통학생들은 학교에서 쉽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학교 외부에서 찾고, 아르바이트, 학원, 가족, 친구 등 인간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노력한다고 주장한다.¹⁸⁾ 따라서 학교생활에 있어 통학 시 교통문제가 매우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며, 통학시간 및 학교 체류시간 단축을 위하여 시간표를 조정하고, 원치 않는 수업을 수강하거나, 통학로에서 가까운 강의실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향후 대학 캠퍼스의 마스터

18) Barbara Jacoby, Why involve commuter students in learning?,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No. 109, p6, 2000.

플랜 수립 시 이러한 통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들이 느끼는 캠퍼스의 이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보다 균형적인 캠퍼스의 공간 이용과 통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의 통학생 중심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연세대학교는 2004년 현재 학부생 26,000여명, 대학원생 10,000여명이 넘지만 전체 기숙사 수용 인원은 2,626명에 불과하다.¹⁹⁾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서구의 우수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항상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충분한 기숙사 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대학 캠퍼스를 단순한 강의실이 아닌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whole community)를 표방하는 서구 대학들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²⁰⁾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도 보다 풍부한 대학의 문화와 수준 높은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학습과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완결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교내의 불균형적인 공간이용을 개선시키는 데도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구민아, 김영대, 대학 캠퍼스 공간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26, No.4, 1999.
2. 김기홍, 온영태, 대학캠퍼스 확충을 위한 기능구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9권, 제1호, p351-356, 1999.
3. 김미자, 대학캠퍼스주변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만족도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4. 김철수, 전정아, 대학캠퍼스주변의 생활편익시설 이용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Vol.35, No.1, 2000.
5. 김한수, 대학주변의 물리적 환경실태에 관한 연구-대구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Vol.34, No.2, 1999.
6. 민창기, 대학 마스터 플랜 형성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9권, 제1호, 2002.
7. 박영춘, "도시의 이미지" 측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Vol.37, No.4, 2002.
8. 양우현, 이광로, 대학 캠퍼스의 계획과정에 관한 연구(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4호, p35-41, 1990.
9. 양우현, 이광로, 대학 캠퍼스의 계획과정에 관한 연구(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1호, p45-51, 1991.
10. 이숙임, 김현민, 성효현, 대학주변의 토지이용 및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Vol.31, No.2, 1995.
11. 이양재, 유기룡, 대학로 주변지역의 형성과정 및 토지이용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Vol.36, No.1, 2001.
12. 이훈, 이용희, 인지도에 의한 청주시 이미지 분석,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제18권, 제1호, 1999.
13. Barbara Jacoby, Why involve commuter students in learning?,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No. 109, 2000.
14. Donald Appleyard, Style and Methods of Structuring a City, Environment and Behavior 2, June, 6, 1970.
15. Mark Horan, What students see: sketch maps as tools for assessing knowledge of librari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ume 25, Number 3, 1999.
16.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17. Turner, P. V., Campus, MIT Press, 1984.

19)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yonsei.ac.kr>, 2004년 7월 1일 접속

20) Turner, P. V., Campus, MIT Press, p3, 1984.